

#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잠긴 문 안으로 오신 분, 두려움에서 새로운 사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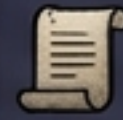


엘림G선교회 한진준 대표 / 힐링교회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요 20:19)

부활의 아침이 지났음에도, 제자들은 환호하지 못했습니다.



헬라어 ‘케클레이스메논(κεκλεισμένων)’.  
한 번 닫은 것이 아니라, 닫힌 채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  
두려움은 문을 이중 삼중으로 걸어 잠그게 만듭니다.



## 우리가 문을 잠근 3가지 진짜 이유



### 사회적 보복의 두려움

‘다음은 우리 차례다.’  
부활의 소문을 듣고도 알면서  
못 움직이게 만드는 마비 현상.



### 죄책감과 수치심

‘나는 자격이 없다.’  
배신했다는 행동의 문제를 넘어,  
자신을 나쁜 존재로 여기는 깊은 부끄러움.



### 신앙의 붕괴

‘이제 다 끝났다.’  
또 다시 속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모든 새로운 시도와 소망을 차단해버리는 단절.

# 2026년 오늘, 우리 안의 닫힌 문은 무엇입니까?

강제추방이 두려운  
이주민 형제



매출 하락이 두려운  
사업가 집사



취업 실패가 두려운 청년



과거의 실수로  
공동체를 떠난 성도

부활절 플래카드는 걸었으나, 마음의 다락방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 벽이 된 문, 문이 된 벽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지도, 열어 달라 부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닫아건 문은 주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의 구석이 아닌 '가운데'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 εἰρήνη ὑμῖν — 샬롬

(에이레네 휘민)

왜 도망쳤느냐?는 책망이 아닌,  
수용과 평강이 먼저였습니다.

◆ **십자가의 영수증:** 부활 자체가 이미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선포입니다.

◆ **힐링의 지혜:** 상처받은 영혼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진단이 아니라 따뜻한 안식입니다.

◆ **창조의 회복:** 샬롬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깨어진 곳에 온전함을 채우는 선언입니다.

# 부활의 몸은 왜 상처를 간직하셨는가?



## ◆ 동일성의 증거

영광의 유령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은 바로 그분임을 증명합니다.

## ◆ 사랑의 영원한 훈장

지울 수 있음에도 하늘 보좌까지 남겨두신 구원의 족보입니다.

## ◆ 치유하는 상처

거룩한 완벽함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를 찾아오신 상처 입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 53:5)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누군가의 절망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실패한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됩니다.

극도의 공포를 진정시키는 생명의 숨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 20:22)

인간의 공포를 가장 빠르게 진정시키는 것은  
깊은 호흡입니다. 주님은 파송에 앞서,  
우리의 내부를 거룩하고 창의적으로 변화시키는  
당신의 숨결(성령)을 먼저 나누어 주십니다.



# 구속사 속의 '에네튀세센(ἐνεφύσησεν)' — 새 창조의 타임라인

## [창조의 아침]

창세기 2:7.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게 하심.



## [예언의 골짜기]

에스겔 37:9.  
죽음을 당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군대'로 살게 하심.



## [성취의 저녁]

요한복음 20:22.  
부활의 저녁,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새 창조'를 선언하심.



신약에 단 한 번 쓰인 이 단어는, 부활의 저녁이 곧 새 창조의 아침임을 증명합니다.

##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해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살롬이 용서와 안식을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살롬은 새로운 사명을 향한 파송의 선포입니다.  
치유의 살롬에서 파송의 살롬으로 나아갑니다.



두 가지 파송의 의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공통점: 동일한 하늘 권위, 동일한 아버지의 뜻, 동일한 구속의 사명



## 아포스텔로 (ἀποστέλλω)

[하나님 → 예수님] 대사(大使)로 파견하다.  
전권을 가진 공식적이고 수직적인 보냄.  
(사도의 어원)



## 펨포 (πέμπω)

[예수님 → 우리] 함께 동행하며 보내다.  
일상 속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보냄.

실패한 자리가 바로 파송의 자리입니다.

# 열쇠의 권세 (요 20:23)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 정죄가 아닌, 용서를 선포하는 섬김의 권세

**복음 선포**  
십자가의 사죄를  
세상에 알리는 권세



**용서의 실천**  
내게 상처 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특권

## 권징과 회복

공동체를 진리 안에서 치유하고 세우는 권세

우리는 죄를 없애는 주체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용서를 땅에 선포하는 통로입니다.

# 문을 여는 삶으로: 오늘 우리가 열어야 할 5가지 문



## 1. 두려움의 문

막막한 순간,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  
소리 내어 선포하기



## 2. 죄책감의 문

자책보다 주님의  
첫 마디 '샬롬'을 먼저  
기억하고 수용하기



## 3. 관계의 문

아직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을 위해  
'사하심'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 4. 사명의 문

일터와 이주민  
이웃(Glocal)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 건네기



## 5. 성령의 호흡

매일 아침 5분,  
깊게 숨을 쉬며 내 안의  
성령(생기)을 구하기

# 치유는 도착지가 아니라, 보냄을 위한 출발지입니다.

잠긴 문이 부활의 주님을 막지 못했듯, 내 안의 잠긴 문도 주님을 막지 못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 사람들, 오늘 여기 다시 모였습니다.”